

현진건 소설과 『개벽』이라는 미디어

— 「운수조흔날」, 「불」을 중심으로

朴賢洙*

- | | |
|-------------------------|--------------------|
| I. 문제의 소재 | IV.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 |
| II. 기자와 작가, 그 겹쳐짐과 비껴남 | V. 하층민 표상의 데지뷰적 성격 |
| III. 「지새는안개」 연재와 서사적 균열 | |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현진건의 소설 「운수조흔날」, 「불」 등을 『개벽』이라는 미디어, 또 같은 시기에 발표된 소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해 그 정당한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현진건은 『동명』, 『시대일보』 등에서 일했는데, 『동명』이 종간되고 『시대일보』가 창간되는 데는 10개월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다. 기자로 근무하면서 『동명』, 『시대일보』에 발표한 작품은 드물었는데, 당시 현진건의 주된 발표 지면은 『개벽』이었다. 단편의 게재를 선호했던 잡지 미디어에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지새는안개」를 연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 편의 소설로 볼 때 「지새는안개」는 서사적 균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치국의 등장과 ‘반도일보사’를 다룬 부분이 그것이다. 현진건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소설에 당시 잡지 미디어의 중심에 위치했던 『개벽』의 지향을 담으려 했다. 1924년 중반부터 『개벽』 문예면은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으로 역할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필진을 정립하려 했다. 「운수조흔날」의 김첨지 가족이나 「불」의 순이의 삶에는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소설에서의 비극은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김첨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운수에 기대어 헤아리는 인물로 그려지며, 순이의 절박한 고통은 가난이나 고된 시집살이보다는 남편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교수

과의 성관계 때문이다. 현진건이 「운수조흔날」과 「불」에서 김 침지, 순이 등을 등장한 것이 초기작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데자뷰같이 느껴지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주제어 : 현진건, 「운수조흔날」, 「불」, 『개벽』, 기자, 「지새는안개」, 필진, 운수, 성 등

I. 문제의 소재

현진건은 1924년 6월에 「운수조혼날」을, 또 1925년 1월에 「불」을 발표한다. 김기진은 「불」이 발표된 다음달 「월평」에서 “『한머니의죽음』 『까막잡기』를 지나서 『운수조혼날』로부터 쓰는 지금의 『불』까지에 이르는 作者의 그 取材上 傾向은 이 作者의 意識 限界가 擴大된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개의 事件을 고대로 拘實하게 讀者의 눈압해 보히여주는 것뿐만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그곳에 作者의 態度를 보히여 주었으면 조켓다는 注文을 하고 싶”¹⁾다는 아쉬움 역시 덧붙였다. 김기진의 ‘월평’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소재 선택에서 작가의 의식세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에도 사건을 다룰 때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언급은 「운수조혼날」, 「불」 등에서 이전 소설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겹쳐지고 있다.

앞선 평가의 열개는 이후 문학사적 규정에서 「운수조혼날」, 「불」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²⁾ 일군의 논의는 “자아의 투지와 세계의 횡포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작품을 이룩해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작업을 일단 완결 지었다”³⁾고 해, 소설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성취를 인정한다.⁴⁾ 이들 논의는 「운수조혼날」, 「불」 등과 초기작들과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이 신변체험소설로 불리는 것처럼 작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 두 소설에서는 하층민 등을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일군의 논의는

- 1) 김기진, 「一月創作界總評」, 『개벽』 56, 1925.2, 2면. 이하의 인용문은 원문의 표기법을 따른다. 단 띄어쓰기는 현대식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 2) 근래의 한 연구는 현진건 소설 「운수조혼날」의 정전화 과정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리얼리즘론, 민족문화론, 노동문학 등 현대문학의 쟁점 및 화두를 배경으로 재발견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운수조혼날」이 한국 단편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는데, 리얼리즘론, 민족문화론, 노동문학 등의 쟁점 및 화두가 김기진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부분과 겹쳐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손성준, 「한국근대문학사와 『운수 좋은 날』 정전화의 아이러니」,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515~546면 참조.
-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130~131면.
- 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290~293면;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157~172면; 김재용·이상경 공저,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302~309면; 최원식, 「빙허 현진건론」,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82~92면 참조.

「운수조흔날」, 「불」 등의 소설을 “모순과 부조리가 어디서 오는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혹은 포기해버리는 인물들이 가득 차 있다”⁵⁾고 해, 앞선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다.⁶⁾ 이들 논의 역시 모순과 부조리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초기작과는 다른 시선의 확대는 인정하고 있다.⁷⁾

소설적 성취에 대한 긍부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학사적 규정은 「운수조흔날」, 「불」 등에서 나타난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인정의 중심에는 작가의 시선이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보다 넓은 현실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러한 문학사적 평가에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먼저의 이유는 비슷한 시기 현진건의 다른 작품들 때문이다. 작가는 1924년 2월 「그림은흘긴눈」을, 1925년 2월 「B숨監과러브레터」를 발표한다. 또 1925년 5월 12일부터 1925년 6월 30일까지는 『시대일보』에 『첫날밤』을 연재했다. 비슷한 시기 세 권의 단행본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1924년 1월에 『악마와가티』를, 1925년 1월에 『지새는안개』를, 또 같은 해 11월에는 『시대일보』에 연재했던 『첫날밤』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림은흘긴눈」이나 「B숨監과러브레터」를 작가의 시선이 확대되거나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린 소설로 보는 데는 망설임이 따른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악마와가티』, 『지새는안개』, 『첫날밤』 등의 단행본이 지니는 성격이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악마와가티』는 현진건의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백발』을 ‘개제’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었다. 작가 자신은 이 소설에 대해 창작도 아니고 번역도 아니고 번안도 아닌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일정한

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63~165면 참조.

6) 임화, 「조선신문학사론서설」, 『조선중앙일보』, 1935.10.23~26; 백철, 『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356~369면 참조.

7) 근래 현진건 소설에서 체험의 의미를 미디어와 연결시켜 파악하거나 근대소설의 관습과 관련해 가능하는 논의들이 개진된 바 있다. 현진건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실감을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개벽』의 기록서사와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 논의, 현진건 소설에서 체험을 기록하는 방식이 근대소설의 관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논의 등이 그것이다. 또 소설에서 나타난 묘사가 대상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시상을 재현하는 방식이나 체계의 유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현진건 소설을 체험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데 거리를 두려는 논의 역시 개진되었다. 이러한 논의로는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562~591면; 이경돈, 『문학이후』, 소명출판, 2009, 476~480면; 박현수, 「현진건 소설에서 체험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315~345면 참조.

차이를 지닐지라도 『지새는안개』나 『첫날밤』 역시 다르지 않다.⁸⁾

이 글이 「운수조흔날」, 「불」과 「그립은홀긴눈」, 「B숨監과러브레터」, 『첫날밤』 등 다른 소설과의 간극을 해명하기 위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선 두 소설의 발표 지면이다. 「운수조흔날」과 「불」은 모두 『개벽』에 발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개벽』은 “1920년대의 ‘미디어적 중심’이자 ‘시대의 총아’”⁹⁾였다. 거기에는 당시의 선도적인 담론을 주도했다는 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원고료를 안정되게 지급하였다는 점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글은 『개벽』이라는 발표 지면에 주목하는 일이 앞선 간극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디어로서 『개벽』의 위상이 「운수조흔날」, 「불」 등의 소설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선 문학사적 규정에서 「운수조흔날」과 「불」을 평가하는 데 『개벽』이라는 미디어가 꼬리표 정도로밖에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글이 『개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이 글은 『개벽』이라는 지면과 함께 두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의 모습에도 주목하려 한다. 현진건이 「운수조흔날」과 「불」에서 김 침지, 순이 등을 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데자뷰와 같이 느껴진다. 이미 현진건은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에서 허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나’를 끌어들이곤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진건을 비롯한 작가들에게는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실을 구현한다는 허구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황석우가 「犧牲花」에 대해 ‘사실의 기록으로서 허위’, ‘빨간 허언’ 등으로 혹평을 한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¹⁰⁾ 소설이 인생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읊기는 것으로 규정되고, 평가의 기준이 현실에 비추어 입증하는 데 놓일 때, 작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응답은 누구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소설화하는 것이었다.¹¹⁾ 「운수조흔날」과 「불」에서는 하층민이 등장했다는 차

8) 『개벽』에 연재된 「지새는안개」와 단행본 『지새는안개』는 일정한 차이를 지닌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개벽』에 연재된 「지새는안개」는 당시 이루어진 미디어의 변화 및 요구와 맞물려 ‘치국’, ‘반도일보사’ 부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에 반해 『지새는안개』가 단행본으로 간행되면서 덧붙여진 후편은 오히려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曉霧」의 주제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9)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13·408면.

10) 당시의 ‘正, 精, 참스러움’ 등으로 받아들여진 허구라는 개념은 인위적인 유교적 교훈이나 도덕의 상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사고에서 표상적 기호를 통한 재현이 언어, 규약, 형식 등 일정한 관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발상은 존재하기 힘들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春園生, 「文學이란 何오」, 『每日申報』, 1916.11.10.~23.; 曉鍾, 「小說概要」, 『開闢』 1, 1920.6, 131~133면;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25~41면 참조.

이를 지니지만, 그것은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것과 겹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먼저 『동명』, 『시대일보』 등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수조흔날」과 「불」이 발표될 즈음의 현진건의 행적을 재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자로서의 행적과 작가로서의 활동의 겹쳐짐과 비껴남을 구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어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개벽』에 모두 9회 연재된 「지새는안개」를 검토하려 한다. 단편의 게재를 원칙으로 했던 잡지 미디어에 9회에 걸쳐 이어졌다는 이례적인 연재에 대한 접근인데, 접근은 현진건에게 『개벽』이라는 미디어가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 이 글은 「운수조흔날」과 「불」이 발표될 당시 『개벽』이 새로운 경향의 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명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운수조흔날」과 「불」의 성격을 해명하는 논의가 될 터인데, 그것이 앞선 문제의 식과 간극을 정당하게 밝히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기자와 작가, 그 겹쳐짐과 비껴남

1923년 1월 『개벽』에 실린 「文壇風聞」에는 다음과 같은 현진건의 동정이 실려 있다.

憑虛 玄鎮健 씨는, 東明社 테블에, 그리 크지 못한 머리를 틀어박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년호 준비에, 진저리를 친다는데, 또 한가지 가이 업슨 일은, 남달리 금슬이 자저진, 부인이, 身病으로 인하여 大邱 本第로 돌아갔슴으로, 쓸쓸한 겨울,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 독수공방하야12)

인용은 1922년 12월 당시 현진건이 『동명』의 신년호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과 아내가 신병으로 친정에 돌아갔음을 말하고 있다. 이 글의 관심은 당시 현진건이 ‘동명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앞부분에 놓인다. 『동명』이 창간된 것은 1922년 9월

11) 박현수, 앞의 2011 논문, 324~340면 참조.

12) 「文壇風聞」, 『개벽』 31, 1923.1, 43면.

3일이었다. ‘시사주보’라는 표제를 걸고, 최남선 감집, 진학문 편집 겸 발행으로 창간되었다. 현진건은 염상섭과 함께 ‘동명사’에 입사해 편집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¹³⁾ 『동명』의 창간 때부터 근무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文壇風聞」을 고려하면 늦어도 1922년 12월에는 ‘동명사’의 기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명』은 창간 이후 1922년 모두 17호를 발행했다. 다음해인 1923년에도 1호를 시작으로 6월 3일 23호를 발행했다. 매주 발행을 원칙으로 했는데, 폐간까지 한 호도 결호가 없었다. 1923년 4월 15일에 발행된 것이 ‘의열단 사건’ 다루어 ‘임시호’라는 제호를 달았지만 발행 순서상 2권 16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문화정치의 실시와 함께 등장한 많은 잡지 미디어가 “대개는 한두 호 하다가 폐간되고 길어야 삼사 호 출판하다가 폐간되”¹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동명』의 순조로운 발행은 드문 일이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사실은 현진건이 『동명』에서 기자로 일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필명으로 발표한 작품이 번역인 「나들이」 한 편뿐이라는 것이다. 1923년 4월 1일 발행된 2권 14호에 실렸다. 당시 작가가 신문이나 잡지 미디어의 기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하지만 기자가 되는 것은 해당 미디어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연재하는 등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거의 9개월 동안 40호에 걸쳐 발행된 미디어에 현진건의 작품이 번역 한 편밖에 없다는 것은 『동명』의 순조로운 발행보다 더욱 이해적이다. 같이 ‘동명사’의 기자로 일했던 염상섭의 1922년 9월(1권 2호)부터 12월(1권 16호)까지 「E선생」을 15회에 걸쳐 연재했고, 1923년 1월(2권 3호) 소설 「죽음과그림자」를 발표했다.

그것은 먼저 현진건이 ‘동명사’에서 작가보다는 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이유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동명』의 지면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염상섭이 「E선생」, 「죽음과그림자」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동명』에 발표된 소설 가운데 창작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앞선 둘을 제외하면 김동인의 「笞刑」밖에 없었다.¹⁵⁾ 시는 변영로, 오상순, 진순성, 김억, 변영만

1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55~57면 참조.

14) 『시대일보』, 1925.1.23.

15) 김동인의 「笞刑」은 작가 사정으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발표된 5회 연재분을 제외하면 1922년

등의 작품이 실렸지만 변영로를 제외하고는 1, 2회 게재에 그쳤다.¹⁶⁾ 『동명』에 실린 문학 작품의 대부분이 번역으로 메워졌다는 점과도 이와 관련이 된다. 1923년 1월에 발행된 2권 4호 이후 소설은 모두 번역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번역자를 밝히지 않은 흥미 위주의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대일보사’에서의 활동을 다루면서 상론하겠다.

『시대일보』는 1924년 3월 31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시대일보』는 국한문 혼용, 대형판 4면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 초기에는 2만 부 정도를 인쇄했다고 한다. 창간 당시 운영진은 사장 최남선, 편집국장 진학문, 정치부장 안재홍, 사회부장 염상섭 등으로 구성되었다.¹⁷⁾ 『동명』의 운영진을 떠올리면 『시대일보』는 인적 체제에서도 『동명』에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진건이 언제부터 『시대일보』에서 근무했는지는 알기 힘들다. 그런데 『시대일보』와 『동명』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창간 당시부터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창간 즈음인 1924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憑虛’라는 필명으로 「발(簾)」을 4회에 걸쳐 연재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¹⁸⁾

창간 즈음 「발(簾)」을 실었지만, 현진건이 『시대일보』에 발표한 소설도 「발(簾)」을 제외하면 「첫날밤」뿐이었다. 「첫날밤」은 1925년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대일보』에 연재되었다. 「첫날밤」 연재 당시 제목 옆에는 ‘놀메번역’이라는 표기가 부기되어 있었다. 「첫날밤」은 연재가 끝나고 5개월 정도 뒤에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된다.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에 “玄鎮健 先生 著”라고 되어 있어, 앞서 『시대일보』에 연재될 때 번역자인 ‘놀메’가 현진건임을 알 수 있다.¹⁹⁾ 광고에는 “玄鎮健 先生 著”라고 되어 있지만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소설은 현진건이 『조선일보』에

12월(1권 16호)부터 1923년 1월(2권 4호)까지 연재되었다.

- 16) 1923년 1월 1일에 발행된 『동명』 제2권 제1호는 13면부터 22면까지 문예 작품이 실려 ‘문예특집’에 가까웠지만, 『동명』 전체로 볼 때 그 호가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문예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는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
- 17) 박용규, 「일제하 시대·중의·중앙·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2,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1996, 111~120면 참조.
- 18) 憑虛, 「발(簾)」, 『시대일보』, 1924.4.2-5. 첫 번째 연재분만 4면에 실렸고 나머지는 3면에 실렸다. 1924년 4월 25일자 연재분에는 ‘憑虛’라는 필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 19) 광고는 『동아일보』의 1925년 11월 2일 1면 하단, 11월 8일 1면 하단, 11월 14일 5면 하단 등 3회에 걸쳐 민태원의 『부평초』, 이상협외의 『정부원』 등과 함께 실렸다. 광고에는 단행본 『첫날밤』 가격이 80전, 발매소가 박문서관, 신구서림으로 나타나 있다.

연재했던 『白髮』과 마찬가지로 구로이와 루이코(黑岩淚香)가 1915년 번안한 『ひと夜の情』을 저본으로 한 것이었다.²⁰⁾

『동명』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지만, 기자로 일하면서 『시대일보』에 발표한 소설도 드물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앞선 언급처럼 『동명』, 『시대일보』 등의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상황과 함께 두 미디어가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시대일보』는 창간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보천교’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판권을 넘기려다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1925년 4월 최남선, 진학문 등이 ‘시대일보사’를 떠나고 홍명희, 한기악, 이승복 등이 『시대일보』를 인수했던 것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었다.²¹⁾

창간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렸던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은 가능하면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기사’로서의 문학에 부여된 역할은 독자를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로 지면을 메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역할에 부응하는 것은 ‘근대문학’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였을 것이다. 『동명』에 실린 문학 작품의 대부분이 번역자를 밝히지 않은 흥미 위주의 것이라는 점, 또 현진건이 『시대일보』에 『첫날밤』을 연재한 것 등은 이러한 미디어의 상황과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원고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진건이 기자로 일할 때 『시대일보』의 급여 수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1925년 5월 20일 같은 『시대일보』의 기자였던 나도향이 참가했던 ‘철필구락부’의 요구 사항에 사회부 기자의 월급을 8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당시 급여가 80원이 안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실제 ‘시대일보사’가 처한 경영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²³⁾ ‘동명사’나 ‘시대일보사’의 기자가 해당 미디어에 작품을 발표했을 때, 기자

20) 『ひと夜の情』의 본문 1면에 ‘黑岩淚香 譯’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역시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안으로 보인다고 파악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성준, 「투르게네프의 식민지적 변용-『사냥꾼의 수기』와 현진건의 후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333면, 각주 7 참조.

21) 박용규, 앞의 1996 논문, 111~120면 참조.

22) 1925년 5월 22일 종로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낸 「諺文記者 盟休에 관한 건」에 보면 1925년 5월 20일 나도향은 김성수, 송진우, 류지영, 장희식, 김동진 등과 〈철필구락부〉 기자 모임에 『시대일보』 기자로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23) 현진건과 함께 『시대일보』 기자로 일했던 김기진은 1926년 8월 즈음 『시대일보』는 경영난에

급여 외에 따로 원고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미디어에 작품을 싣는다고 해서 따로 원고료가 책정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명사’, ‘시대일보사’에서 기자로 일을 할 때 현진건 작품의 발표 지면은 어디였을까? 1923년 1월 1일에는 『동아일보』 신년호에 「郵便局에서」를, 같은 해 9월에는 『백조』 3호에 「한머니의 죽음」을 발표했다. 또 1924년 2월에는 『폐허 이후』가 ‘문인회’ 기관지를 내세우고 발행되었는데, 현진건은 거기에 「그림은흘긴눈」을 실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현진건은 이 시기 대부분의 글을 『개벽』에 발표했다.²⁴⁾ 1922년 7월에는 「가을의 하로밤」, 「故郷」 등 번역 두 편을 『개벽』에 발표했다.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새는안개」를 연재했는데, 단편 중심의 게재가 이루어지던 『개벽』에 9회에 걸쳐 소설을 연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1924년에는 1월에 역시 『개벽』에 「까막잡기」를 발표했다. 그러고는 이 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소설을 각각 1924년 6월, 1925년 1월에 발표했다.

작품의 주된 발표 공간이 『개벽』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시기 현진건이 단행본을 활발하게 발행했다는 점이다. 현진건은 1922년 11월 13일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을 묶어 『墮落者』를 발행한다. 또 1924년 1월에는 ‘동문서림’에서 『惡魔와가티』를 발행했는데, 이 소설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白髮』을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것이었다.²⁵⁾ 또 1925년 1월에는 ‘박문서관’에서 『지새는안개』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지새는안개』는 『조선일보』에 연재한 「曉霧」, 『개벽』에 연재했던 「지새는안개」를 완결시켜

시달려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못 해 대장 4면을 3부씩 만들어 경기도 경찰부,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검열계에 납본만 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金八峯, 「片片夜話」(83), 『東亞日報』, 1974.6.7. 참조.

24)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 초기작도 『개벽』에 발표했다. 이들 소설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현진건은 문단의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활동했던 것과 1922년부터 『백조』 동인으로 활동했던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개벽』에서 활동하는 데는 당숙인 현철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초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1922년 10월 『개벽』에 실린 「編輯餘言」에는 1922년 7월 31일자로 현희운, 곧 현철이 일신상의 형편으로 학예부 주임을 사임했다는 언급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編輯餘言」, 『개벽』 28, 1922.10, 판권간기면 참조.

25) 玄鎭健, 「갓잔은小說로問題」(〈小說쓰되 小說家가 小說 쓴 째문에 當한 일〉), 『별건곤』 18, 1929.1, 117면 참조.

출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25년 11월에는 『첫날밤』을 단행본으로 발행했는데, 이 소설이 『시대일보』에 연재한 소설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Ⅲ. 「지새는안개」 연재와 서사적 균열

현진건은 『개벽』에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새는안개」를 연재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잡지 미디어가 1회로 완결되는 단편을 주로 실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9회에 걸친 연재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전 염상섭의 「除夜」가 5회 연재되었던 적은 있지만, 「지새는안개」가 연재될 즈음에는 이광수의 「거룩한죽음」이 2회, 김동인의 「눈을 겨오썰썰」이 3회 연재를 이어갔을 뿐이다.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 편의 소설로 볼 때 「지새는안개」는 서사적 균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단행본으로 발행된 『지새는안개』까지 고려하면 균열은 더욱 선명한데, 『개벽』에 연재된 부분만으로도 문제는 두드러져 보인다.²⁶⁾

「지새는안개」의 전반부는 정애, 창섭 등을 초점화자로 내세워 두 사람의 ‘신성한 연애’를 그리는 데 할애되고 있다. 실제 「지새는안개」의 전반부는 이전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曉霧」로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현진건은 『조선일보』의 기자로 일하면서 192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曉霧」를 모두 28회 연재하다가 중단된 바 있는데, 「曉霧」의 초점이 정애와 창섭의 ‘신성한 연애’를 그리는 데 놓여 있었다. 그런데 정애, 창섭의 연애는 「曉霧」가 연재되던 1921년 5월 당시에는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연재소설의 주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새는안개」가 연재될 1923년에는 이미 그 ‘신성한’은 시의성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무언가 다른 방식의 소설 전개가 필요했다.

다른 방식의 전개는 당시 『개벽』이 지향한 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개벽』의 사상적 지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922년 후반부터였다. 이전까지 『개벽』의 지향은

26) 『조선일보』에 연재된 「曉霧」, 『개벽』에 연재된 「지새는안개」, 그리고 단행본 『지새는안개』 등의 판본에 따른 서술방식의 차이와 거기에 투영된 미디어의 논리에 대해서는 박현수, 「세 개의 텍스트에 각인된 미디어의 논리-현진건의 『지새는안개』 판본 연구」, 『대동문화연구』 9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323~354면 참조.

1920년대 초반 조선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문화주의에 근간을 둔 개조론과 관련되어 있었다.²⁷⁾ 변화는 농민, 물가, 생활 등 당대 조선의 사회, 경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원인이나 개선 방안을 다룬 선우전, 이성환 등의 글에서 나타난다.²⁸⁾ 1923년에 들어서 사회, 경제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이성태, 주종건, 정백 등의 글이 지면에 비중 있게 실리게 된 것 역시 이와 연결된다.²⁹⁾

변화의 영향은 『개벽』의 문학에도 미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뒤인 1923년 중반부터였다.³⁰⁾ 임정재가 당시 문학을 『백조』와의 데카당스적 경향, 『폐허』와의 저널리즘적 경향 등으로 보고 그 부르주아적 한계를 비판한 「文士諸位에게與하는一文」이 1923년 7월호부터 두 번에 걸쳐 발표되었다.³¹⁾ 또 1923년 7월호에는 임노일의 「社會主義와藝術」과 함께 김기진의 「Promenade Sentimental」도 실려 있다. 김기진은 이 글을 시작으로 『개벽』의 주요 필자가 되어 「클라르테運動의世界化」, 「싸르뤼스對

-
- 27) 최수일은 『개벽』의 논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을 1923년 후반, 37호를 전후한 시기로 보며, 그것이 문화운동의 쇠퇴 내지 변질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고등되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했다.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1923년 후반이었지만 이미 1922년 중반부터 변화의 맹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수일, 앞의 2008 책, 461~485면 참조.
- 28) 鮮于全, 「農民의都市移轉과農業勞動의不利의諸原因」, 『개벽』 26, 1922.8, 26~40면; 「物價問題와吾人の生活改善」, 『개벽』 28, 1922.10, 21~31면; 李晟煥, 「農村의衰頹를 恬然視하는當局」(朝鮮의農政問題), 『개벽』 29, 1922.11, 15~25면; 「먼저 農民부터 解放하자」, 『개벽』 32, 1923.2, 33~41면; 「朝鮮農民이여 團結하라」, 『개벽』 33, 1923.3, 53~64면 참조.
- 29) 이들 가운데 정백은 白綽이라는 필명으로 40호에서 42호까지 〈社會主義學說大要〉라는 큰 제목 아래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立地」, 「唯物史觀과 唯心史觀」 등의 글을 연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星泰, 「원편을 向하여」, 『개벽』 38, 1923.8, 20~24면; 朱鍾建, 「國際無產青年運動과 朝鮮」, 『개벽』 39, 1923.9, 6~10면; 鄭栢, 「唯物史觀과 唯心史觀」, 『개벽』 42, 1923.12, 24~32면; 송민호, 「1920년대 근대 지식 체계와 『개벽』」,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27~29면 참조.
- 30) 한기형은 전반기 『개벽』 문학의 사상내용이 모호한 것에 반해 1923년 중반 즈음을 계기로 하는 후반기의 문학은 불세비즘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이 사상운동, 혁명운동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요구한 데 대한 적극적 동의와 참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60~62면 참조.
- 31) 任鼎宰, 「文士諸位에게與하는一文」, 『개벽』 37, 1923.7, 36~39면; 『개벽』 39, 1923.9, 29~34면 참조.

로맨로란間的爭論」, 「또다시 「클라르테」에 대해서-썸르쥬스研究의一片」 등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소개하는 글들을 발표했다.³²⁾

정애와 창섭의 연애를 그리던 「지새는안개」에서 ‘다른 방식의 전개’가 나타난 것은 창섭의 고향 친구인 치국이 등장하면서이다. 치국은 3장에서 사천, 강세창 등의 친구들과 함께 창섭을 찾아오는데, 창섭은 청요릿집에 가서 동경으로 떠나는 치국의 환송회를 열게 된다. 치국은 “떡 벌어진 억개판, 검으테테한 얼굴빛”을 지니고, “죽으만한 눈은 『그 까짓것』하는 세상을 넘보는 듯”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환송회에서 “제 幸福보담도 제 목숨보담도 自由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自由를 壓迫하고 拘束하는 모든 것과 싸”³³⁾우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앞선 외양과 신념에서 드러나듯이 치국은 소설의 주제가 정애와 창섭의 연애에 한정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때까지 신성한 연애의 대변자였던 창섭이 환송회에서 치국이 “맨 주먹으로 東京 留學을 괴운차게 해 보라 하거늘” 자신은 “방구석에 意氣消沈하게 처박히어 풋사랑에 속을 석이는가 하매, 붓그러워 얼굴도 들 수 업”³⁴⁾다고 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지새는안개」에서 치국이 등장하는 5회가 연재된 것은 1923년 6월이었는데, 당시는 『개벽』의 사상적 지향에서 나타난 변화가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였다. 이를 고려하면 치국의 등장은 작가가 『개벽』이라는 미디어의 변화, 요구 등을 소설 속에 반영하려고 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 치국의 등장은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등장과 함께 동경으로 가는 것으로 사라짐에 따라 서사적인 균열을 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지새는안개」의 전개에서 더욱 심한 균열은 ‘반도일보사’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개벽』에 연재된 「지새는안개」의 마지막 두 장인 4, 5장은 창섭이 ‘반도일보사’에 입사해 근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기자는 창섭이 일찍부터 동경해 왔던 직업이지만 동경은 오래가지 못 한다. 창섭은 신문의 지면을 메우기 위해 매일 ‘기리누끼’, 곧 일본의 신문에서

32) 林蘆月, 「社會主義와 藝術」, 『개벽』 37, 1923.7, 21~29면; 金基鎭, 「Promeneade Sentimental」, 같은 잡지, 같은 호, 82~100면; 「클라르테運動의 世界化」, 『개벽』 39, 1923.9, 11~24면; 「썸르쥬스 對로맨로란間的 爭論」, 『개벽』 40, 1923.10, 23~51면; 「또다시 「클라르테」에 대해서-썸르쥬스 研究의 一片」, 『개벽』 41, 1923.11, 7~55면 참조.

33) 憑虛, 「지새는안개」(제5회), 『개벽』 36, 1923.6, 89면.

34) 憑虛, 앞의 소설, 앞의 회, 92면.

기사를 번역해 옮기는 작업을 거듭하는 동안 하나의 기계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후 소설의 대부분은 『반도일보』 1면 논설 담당자, 3면을 담당하 사회부장, 편집국장, 그리고 젊은 기자들을 통해 창섭의 환멸을 그리는 데 할애되어 있다.

‘반도일보사’를 다룬 부분이 야기한 먼저의 서사적 균열은 아이러니하게 치국의 갑작스러운 퇴장에서 찾을 수 있다. 4, 5장을 ‘반도일보사’를 다루게 됨에 따라 3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동경에 유학을 간 치국이 등장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4, 5장에서 3장까지 주된 비증을 차지했던 정애, 화라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균열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반도일보사’ 부분은 이후 단행본으로 발행되면서 더해진 후편에서도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 한다. 이는 ‘반도일보사’ 부분이 앞선 소설의 전개와 단절되어 서사적 균열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뒷부분에서 사라져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현진건은 이러한 균열을 거듭 감수하면서까지 치국을 퇴장시키고 ‘반도일보사’ 부분을 끌어들었을까? 「지새는안개」에서 ‘반도일보사’를 다룬 연재분은 1923년 8월, 9월에 게재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슷한 시기 『개벽』이 창간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각종 신문 잡지에 대한 비판’이라는 특집이다. 특집 기사가 게재된 것은 1923년 7월로, 「지새는안개」에서 ‘반도일보사’를 다룬 부분이 등장하기 바로 전호였다. 1923년 6월호에 실린 「社告」는 특집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一 現下의 文化運動 及 社會運動에 對한 批判

二 朝鮮境內에서 刊行되는 各種 新聞 雜誌에 對한 批判

먼저 右記의 二類에 對한 眞實, 大膽한 批判文의 投稿(1行 23字 300行 以內)...

와 또는 現下 社會問題를 中心으로 한 三 短篇小說(1行 23字 400行 以內)과 感想文(1行 23字 200行 以內)의 投稿를 至願하오며 微誠이오나 讀賢의 原稿를 掲載하 온 分에 對하야는 薄謝를 모하겟습니다.³⁵⁾

‘개벽 삼주년 기념 특대호 간행’이라는 제목의 「社告」는 당시의 문화운동 및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 조선에서 발행되는 각종 신문, 잡지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룬 독자들

35) 「社告」, 『개벽』 36, 1923.6, 표지 뒷면.

의 투고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글이 관심은 후자에 놓인다.

1923년 7월 발행된 『개벽』 37호에는 창간 3주년 기념하는 특집 ‘각종 신문 잡지에 대한 비판’이 게재된다. 특집에는 모두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東亞日報에對한不平」, 「所謂八方美人主義인朝鮮日報에對하야」, 「朝鮮日報의正體」, 「每日申報는엇더한것인가」, 「雜誌『新天地』의批判」, 「開闢에對한小感」, 「開闢너는어떠한고」 등의 글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의 신문과 『신천지』, 『개벽』 등의 잡지에 대한 비판을 싣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있는 글은 申澈의 「所謂八方美人主義인朝鮮日報에對하야」, 我我生의 「朝鮮日報의正體」 등 두 글이다. 비판의 요지는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창간했으며 과격한 논조 역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지새는안개」에 등장한 ‘반도일보사’ 부분 역시 당시 ‘각종 신문 잡지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은 1923년 9월 「지새는안개」 8회 연재분에 첨부되어 있는 「作者로부터 讀者에게」라는 글이다. 현진건은 “소설이 신문의 3面 記事가 아닌 다음에야 그 가운데 나오는 인물과 사건”에 “결코 무슨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어 “半島日報社의 内幕과 社員이 결코 作者의 일즉이 다닌 일이 잇는 某社의 内幕 고대료가 아니고 社員의 고대료가 아니”³⁶⁾라는 것 역시 밝힌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오해하는 독자가 있을까 미리 ‘성명’해 둔다고 했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 ‘반도일보사’가 ‘作者의 일즉이 다닌 일이 잇는 某社’와 관련되어 있음을 ‘성명’하는 역할을 한다.

현진건은 1920년, 1921년 ‘조선일보사’에서 기자로 근무한 바 있다. 현진건의 글이 처음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이 1920년 12월 2일부터여서, 입사를 한 것은 1920년 11월을 전후한 때로 보인다.³⁷⁾ 『조선일보』의 1면, 4면 등에 소설을 연재했는데, 앞서 단행본 발행을 검토하면서 언급했던 『白髮』도 그 하나였다.³⁸⁾ 현진건이 언제 ‘조선일

36) 憑虛, 「지새는안개」(제8회), 『개벽』 39, 1923.9, 130면.

37)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Pervaya lyubor)」을 번역한 「初戀」을 연재했는데, 연재는 1921년 1월 23일까지 이어졌다. 투르게네프 소설의 연재는 1921년 4월 30일까지 「浮雲」으로도 이어졌다. 현진건이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했던 시기에 관해서는 玄鎮健, 「七年前十一月末日」, 『별건곤』 4, 1927.2, 49~51면 참조.

38) 『白髮』은 1921년 5월 14일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연재를 마친 시점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白髮』에 관해서는 황정현, 「현진건 장편번역소설 『백발』 연구」, 『한국학연구』 42, 고려대 한국학연구

보사'를 그만뒀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1922년 5월 25일 발행된 『백조』 2호에 실린 「朦朧한記憶」 등을 참고하면 적어도 1921년 10월까지의 '조선일보사'에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를 고려하면 「作者로부터 讀者에게」는 소설에 등장하는 '반도일보사'의 내막, 사원 등은 작가가 이전에 일했던 '조선일보사'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에둘러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일보사' 부분이 연재된 것이 앞선 『개벽』의 특집 기사가 실린 직후라는 점, 그 내용이 현진건이 이전에 일했던 '조선일보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은 현진건이 서사적 균열을 감수했던 이유의 많은 부분을 말해준다. 물론 거기에는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치국을 통해 『개벽』이 지향한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그려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신문사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는 편이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진건은 이미 1922년 『개벽』에 「墮落者」를 연재할 때 '실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추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데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대해 알고 있었다.⁴⁰⁾

이 글의 관심은 현진건이 '치국'이나 '반도일보사' 부분 등을 갑자기 끌어들이는 서사적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설에 당시 변화된 『개벽』의 미디어적 지향을 담으려고 했다는 데 놓인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현진건이 '동명사', '시대일보사' 등의 기자로 근무를 할 때 작품을 주로 발표한 공간은 『개벽』이었다. 그것은 『개벽』이 1920년대의 '미디어적 중심'이자 '시대의 총아'⁴¹⁾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당시 『개벽』의 미디어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벽』이 당시 미디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데는 높은 수준의 원고료를 안정되게 지급했다는 이유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개벽』은 1920년대 초반 경영이 안정되었을 때는 시는 1편에 5원, 산문은 23자 10행 원고지 4매에 2원 50전 정도를 원고료로 지불했다고 한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원고료를 인하하는데, 1924년에는 산문의 경우 230자 원고지 1매당 50전으로 낮아졌다가 1925년에는 40전 정도로 감액되었다고 한다.⁴²⁾ 1920

소, 2012, 321~323면 참조.

39) 1921년 9월 30일 이후 현진건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글은 없는데, 1922년 1월부터 11월까지에는 『조선일보』가 유실되어 현진건의 흔적을 찾기는 더욱 힘들다. 여기에 관해서는 憑虛, 「朦朧한記憶」, 『백조』 2, 1922.5, 133·134면.

40) 현철·현진건, 「墮落者 後記」, 『開闢』 22, 1922.4, 35~36면 참조.

41) 최수일, 앞의 2008 책, 13·408면.

년대 중반에 이르러 원고료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다른 잡지 미디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현진건이 『개벽』에 「지새는안개」를 연재하던 시점이다. 현진건은 1923년 6월 『동명』의 종간과 함께 ‘동명사’를 그만두게 된다. 물론 『동명』은 『시대일보』로 이어졌지만, 거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다. 1924년 3월 『시대일보』가 등장한 것은 『동명』이 종간된 지 10개월 만이었다. 현진건의 입장에서는 거의 10개월 정도 기자로서 활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시대일보』가 『동명』에서 이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창간 준비의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창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렸던 『시대일보』의 상황을 고려하면 창간 준비의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새는안개」 5회부터 9회가 연재되던 시기에는 현진건이 기자로서 급여를 받지 못했던 시기였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현진건이 『墮落者』, 『惡魔와가티』, 『지새는안개』 등 단행본 발행에 힘쓴 것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개벽』에 「지새는안개」를 연재하면서 받는 원고료가 현진건의 수입의 대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당시 현진건에게 발표 지면으로서 『개벽』이라는 미디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진건이 서사적 균열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새는안개」의 연재를 이어가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을 것이다.

IV.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

현진건이 『개벽』에 「지새는안개」를 연재한 것은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였다. 연재 이후에는 1924년에는 1월 「까막잡기」를 발표했다. 그런데 「까막잡기」 이후 『개벽』에 발표한 소설이 「운수조흔날」이었고, 그 시간적 간극은 반년 정도 되었다. 「운수조흔날」 이후 1925년 1월 「불」을 발표할 때까지 7개월 동안 『개벽』에 발표한

42) 박영희, 「신홍문학의 대두와 개벽시대 회고」, 『조광』 32, 1938. 여기에서는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149면;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미공개일탄일기 평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197면 참조.

글도 없었다. 「불」이 나온 후 『개벽』을 작품 활동의 공간으로 삼는 일은 더욱 드물어진다. 현진건이 『개벽』을 지면으로 한 문학 활동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지는 못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전 9회에 걸친 「지새는안개」의 연재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 현진건은 계속해서 ‘시대일보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1925년 7월 발행된 『조선문단』 10호에 게재된 「文士消息片片」에는 현진건이 “時代日報 社會部長이 되었다”⁴³⁾는 언급이 있다. 1925년 7월 전후 현진건이 『시대일보』의 사회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시대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약 1년 정도 사회부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⁴⁴⁾ 사회부장이 되었다는 것만 차치하면 ‘동명사’, ‘시대일보사’ 등에서 기자로 일을 한 것은 같은 조건이었는데, 왜 이 시기에 들어서 『개벽』에 작품을 발표하는 일은 드물어지게 된 것일까? 폐간 당시 『시대일보』가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였음을 고려하면 현진건의 경제적인 여건 역시 좋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 시기 『시대일보』를 지면으로 발표한 작품 역시 「발(簾)」, 『첫날밤』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 『개벽』 문예면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앞서 『개벽』의 사상적 지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1922년 후반부터였으며, 그것이 문예면에 영향을 미친 것이 1923년 중반부터였음은 확인했다. 그런데 문예면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박영희가 『개벽』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1925년 1월호 「餘言」에는 “新年號부터 本誌 文藝(은 懷月 朴英熙君과 直接 因緣을 맺게)”⁴⁵⁾ 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그때까지 『개벽』의 “文藝(은 貧弱(아)하(貧弱하)았의 오기로 보임; 인용자)”서 “讀者와 編者間 相互의 遺憾(이었다)”⁴⁶⁾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3) 「文士消息片片」, 『조선문단』 10, 1925.7, 215면.

44) 근래의 한 연구는 『시대일보』가 압수 기사까지 포함해서 1926년 8월 15일까지는 발행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신문들과 달리 『시대일보』의 폐간 날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현진건과 함께 『시대일보』 기자로 일했던 김기진은 1926년 8월 즈음 『시대일보』는 경영난에 시달려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못 해 대장 4면을 3부씩 만들어 경기도 경찰부,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검열계에 납본만 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金八峯, 「片片夜話」(83), 『동아일보』, 1974.6.7.; 박용규, 앞의 1996 논문, 117면 참조.

45) 「餘言」, 『개벽』 55, 1925.1, 판권간기면.

46) 앞의 글, 앞의 책, 앞의 면.

박영희가 문예부 주임이 된 것은 『개벽』이 문예면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였다.

박영희가 고정 필자로 『개벽』에 글을 싣고 편집에도 관여하게 된 것은 이전부터였다. 박영희의 글이 『개벽』에 본격적으로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2월호부터였다.⁴⁷⁾ 1924년 2월호에 「체호우戲曲에나타난 露西亞幻滅期の苦痛」, 「自然主義에서 新理想主義에 기우러지려는朝鮮文壇의最近傾向」, 같은 해 4월호에 「檻樓한봄」, 5월호에 「結婚前日」, 6월호에 「惡의花」를심은=썩드레르論, 「愛의 挽歌」, 7월호에 「七月에回想되는海外文人」, 11월호에 「二重病者」, 12월호에 「朝鮮을지내가는에너스-눈에보이는대로-생각나는대로-」 등의 글을 연이어 발표했다.

“編輯에 加擔한든 때로 보면 大正 十三年頃(1924년-인용자)이었”⁴⁸⁾다는 언급처럼 『개벽』에 글을 발표하면서 편집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영희가 정확히 언제부터 『개벽』의 편집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1924년 7월호에 문학부, 8, 9월호에 사상부 등 『개벽』 부록으로 「重要術語辭典」을 박영희가 편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록이 편집진에 의해 기획, 구성됨을 고려하면 이즈음부터 『개벽』의 편집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영희가 현상문에 당선작품 관계로 이기영, 송영 등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 현상문에 대모집’의 당선 발표가 1924년 7월이었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개벽』이 박영희와 ‘因緣을 맺게 된 것’은 단순히 문예면의 활성화를 위해 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영희는 문예부 주임이 되면서 눈에 띄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개벽』의 문학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이광수론’, ‘계급문학시비론’ 등 특집 기획이었다. 1925년 1월호에는 ‘이광수론’이라는 특집을 마련해, 이성태의 「내가본李光洙」, 안석주의 「李光洙의印象」 등과 함께 박영희도 「文學上으로본李光洙」를 발표한다. ‘이광수론’은 당시까지 조선 지식계의 중심에 위치했던 이광수를 비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비판의 근간에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부각시켜 『개벽』의 색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47) 박영희가 『개벽』에 처음 글을 발표한 것은 1923년 1월호의 「僧女」, 「祈願」 등이었지만, 이는 『개벽』이 매년 신년호에서 문예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게재로 보인다. 여기에 관해서는 『개벽』 31, 1923.1, 100~102면 참조.

48) 「新興文學의 擡頭와 開闢時代回顧」, 『조광』 32, 1938.6, 54면.

1925년 2월호에는 ‘계급문학시비론’이라는 특집이 마련된다. 계급문학에 대한 김기진, 김석송, 박종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의 의견과 함께 박영희 자신의 주장 역시 피력되었다. ‘계급문학시비론’은 그때까지 어렴풋한 모습밖에 지니지 못 했던 계급문학을 논의의 중심에 부각시키기 위한 기획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개벽』의 문학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계급문학, 곧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을 정초하는 과정과 맞물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과정은 1924년 10월 등장한 『조선문단』에 대한 견제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광수 주재’를 내세우고 창간된 문예지 『조선문단』은 그 즈음 ‘빈약해서 독자들에게 유감으로 다가갔던’ 문예면 정비의 필요성을 더 하게 했을 것이다. ‘이광수론’을 통해 사상, 인상, 문예 등의 측면에서 이광수를 비판하거나, ‘계급문학시비론’을 통해 계급문학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 등에는 『조선문단』에 대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25년 6월호에 마련된 ‘조선문단 『합평회』에 대한 소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김기진, 조명희, 이상화, 이성해, 박영희 등은 ‘조선문단 『합평회』에 대한 소감’에서 합평회가 지닌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25년 1월 이후 현진건의 주된 발표 지면이 『조선문단』으로 옮겨간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진건이 『개벽』에 「운수조흔날」을 발표한 것은 1924년 6월이었고, 「불」을 발표한 것은 1925년 1월이었다. 이미 그때는 『개벽』을 지면으로 한 문학 활동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지는 못 했던 때였다. 하지만 『개벽』에서의 활동이 드물게 된 것은 작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이 되었던 『개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후 현진건은 발표 지면을 『조선문단』으로 옮겨 1925년 2월 「B舍監과러브레터」, 3월 「처녀작 발표 당시의 감상」, 5월 「설 때의 유쾌와 나흘 때의 고통」, 7월 「조선문단과 나」, 8월 「신추문단소설 평」 등을 발표했다.

『개벽』의 입장에서는 ‘월평’ 역시 『조선문단』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1924년까지 『개벽』에 ‘월평’은 가끔씩 실렸으며, 그 필자는 주로 박종화가 맡았다. 하지만 “제일 生活이 豊饒롭고 頑固한 생활을 하고 있”어 “『力의 藝術論』을 發表한 程度로 그냥 머물르고(머무르고의 오기로 보임; 인용자) 맡았던”⁴⁹⁾ 박종화가 그 역할

49) 박영희, 「草創期の 文壇側面史」, 『現代文學』 60. 여기서는 이동희·노상래 편, 앞의 1997 책,

을 계속해서 맡기는 힘들었다. 당시 『개벽』의 ‘월평’은 『조선문단』의 ‘합평회’를 견제하고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운 필자는 김기진으로, 그는 1925년부터 ‘월평’을 고정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김기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면을 통해 프로문학만이 제대로 된 문학임을 주장하는 승인권의 독점을 꾀해 나갔는데, 그가 현진건의 「운수조흔날」, 「불」 등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밝혔던 것도 ‘월평’을 통해서였다.

이 시기 『개벽』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움직임은 ‘신춘 독자문예 대모집’, ‘현상 단편소설 모집’ 등 독자문예, 현상문예의 기획이었다. 그 가운데 프로문학을 파급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난 것은 ‘『개벽』 5주년 기념’이란 명목을 단 ‘현상 단편소설 모집’이었다.⁵⁰⁾ 「선후감」에서는 거진 40편이 응모했다고 하며, 1등을 제외하고, 2등 1편, 3등 1편, 선외 2편 등 모두 4편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2등은 박길수의 「쌍파먹는사람들」, 3등은 송동양의 「느러가는무리」, 선외는 최문의 「두젊은사람」과 신필희의 「殺害」 등이었다.⁵¹⁾ ‘현상 단편소설 모집’은 1924년 7월 시행된 ‘특별 현상문예 대모집’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당시 소설 부문 당선작은 2등에 최석주의 「破滅」, 3등에 이기영의 「옴바의秘密便紙」, 선외가작에 신필희의 「入學試驗」, 최빙의 「사진求景」 등이었다. 이들은 조흔한 처와 애인 사이에서의 갈등, 오빠의 위선적인 애정 행각,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 가족들의 내면, 활동사진 구경에의 유혹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1년 뒤인 1925년 7월 ‘현상 단편소설 모집’에 당선된 작품은 가난한 농민들의 삶과 소작료 분쟁, 일본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피폐한 삶, 문예사상 강연회 개최를 위한 분투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상 단편소설 모집’이 프로문학의 파급과 함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를 찾으려는 의도와도 결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벽』이 문예면의 색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진을 정립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1924년 전반기까지 『개벽』 문예면의 필자는 김억, 주요한, 김석송, 김동명, 이광수, 양건식, 염상섭, 김동인, 나도향, 현진

327면 재인용.

50) ‘懸賞短篇小說募集’, 『開闢』 59, 1925.5, 표지 다음 면.

51) 「選後感」은 박영희가 담당했는데 글의 말미에는 “八峰金基鎭君이 בח분 時間을 不顧하고 援助하여 畵을 感謝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현상단편소설모집’의 심사는 박영희와 김기진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박영희, 「選後感」, 『개벽』 61, 1925.7, 92-93면.

건, 김기진 등 다양한 문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1924년 중반 이후 문예면의 필진은 이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게 된다. 1924년 4월호에는 이익상의 「戀의序曲」, 5월호에는 박영희의 「結婚前日」, 6월호에는 박영희의 「愛의輓歌」가 게재되었다. 7월호부터 10월호까지는 ‘특별현상문예대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을 실었는데, 당시 이기영의 「옴바의秘密便紙」가 3등에 당선되어 『개벽』의 필자가 되었다. 11월호에는 김기진의 「붉은쥐」, 박영희의 「二重病者」 등이 게재되었다.

1925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1월호에는 박영희의 「戰鬪」가, 2월호에는 박영희의 「정순이의설움」, 조명희의 「쌍속으로」 1회 등이 게재되었다. 또 3월호에는 이익상의 「狂亂」, 조명희의 「쌍속으로」 2회가 실렸고, 4월호에는 박영희의 「산양개」, 주요섭의 「인력거꾼」이 게재되었으며, 5월호에는 이익상의 「흙의洗禮」, 이기영의 「가난한사람들」이 게재되었다. 작품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1925년에 들어서 『개벽』 문예면의 필자는 거의 김기진, 이상화, 이익상, 조명희 등과 박영희 자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25년 말부터 최서해, 최승일 등이 더해지는 것 외에 필진은 앞선 인물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1925년에 들어서 『개벽』 문예면의 필진이 프로문학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현진건이 『개벽』에 「운수조흔날」을 발표한 것은 1924년 6월이었고, 「불」을 발표한 것은 1925년 1월이었다. 여기에서 1924년 6월이 박영희가 본격적으로 편집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기이고, 1925년 1월이 박영희가 문예부 주임이 된 때였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박영희는 특집 기획, 현상문예 등을 통해 『개벽』 문예면의 색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것은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을 정초하는 작업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문예면의 필진을 정립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⁵²⁾

1925년이 되면 『개벽』 문예면의 필진은 대부분 프로문학을 지향했던 작가들로 메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현진건이 『개벽』을 작품의 발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앞서 당시 『개벽』의 미디어적 위상과 그것의 한 부분으로 작용했던 높은 수준의 원고료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현진건은 문학 활동의 지면을 『조선문단』으로 옮겼지만 미디어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조선문단』은 『개벽』과 비교될 수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문예지와 종합지라는

52) 박영희의 초기 행적과 『개벽』 등 미디어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박현수, 「박영희의 초기 행적과 문학 활동」, 『상허학보』 24, 상허학회, 2008, 161~200면 참조.

차이였으며, 원고료 역시 『조선문단』에서는 명월관, 태서관 등 요릿집에서의 식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⁵³⁾

앞서 현진건이 「지새는안개」를 이례적으로 9회에 걸쳐 연재하기 위해 치국을 등장 시키거나 ‘반도일보사’ 부분을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 서사적 균열도 감수했음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 글은 「운수조혼날」이 김 첨지를 중심인물로 한 것, 또 「불」에 순이를 등장시킨 것은 이러한 상황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날 밤』, 「그립은흘긴눈」, 「B숨監과러브레터」 등 같은 시기에 발표한 다른 작품들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V. 하층민 표상의 데자뷰적 성격

이 장에서는 미루어 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사적 서술에서는 「운수조혼날」, 「불」 등을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작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초기작과 달리 이들 소설에서는 당시 하층민의 삶을 향해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두 소설이 인력거꾼 김 첨지 가족의 비극이나 어린 나이에 모진 시집살이를 겪는 순이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문학사적 규정에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운수조혼날」, 「불」 등을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운수조혼날」의 김 첨지 가족에게는 고단함이 묻어난다. 김 첨지 가족은 “조팜도 굶기를 먹다 십히 하는 형편”으로 아내의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팜을 먹고 체한 썬문”⁵⁴⁾이었다. 김 첨지는 ‘운수조혼날’을 맞기까지 근 열흘 동안 인력거에 손님을 태우지 못해 돈 구경도 못 한 형편이었다. “내가 이러케 압흔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라는 아내의 “목 메인 소리를 뒤”⁵⁵⁾로 한 채 인력거를 끌러 나간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불」에 등장하는 열다섯 살의 순이가 겪는 시집살이

53) 김동인, 「文壇三十年의자취」, 1946. 여기에서는 金治弘 편, 『金東仁評論全集』, 三英社, 1984, 461~462면 참조.

54) 玄鎮健, 「운수조혼날」, 『개벽』 48, 1924.6, 140면.

55) 玄鎮健, 앞의 소설, 141면.

역시 고되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쇠죽을 끌혀야” 하고, “아침밥 지을 물을 쏘 아니여 올 수” 없다. “눈코를 못 쓰게 아츠을 치르자마자 쏘 보리를 찌어야” 하고, 점심 때는 “모심기 하는 일군에게 밥을 날라야”⁵⁶⁾ 한다.

김 침지나 순이가 겪는 고통의 절실함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선 문학사적 평가는 「운수조흔날」, 「불」 등의 서술방식에 기대고 있기도 하다. 「貧妻」, 「술勸하는社會」, 또 「墮落者」 등은 서술 시점에 위치한 ‘나’가 이전 ‘나’의 체험을 그리는 1인칭 서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슈탄첼은 1인칭 서술방식의 특징을 “서술적 자아가 회고담 속에서 자기의 옛 자아, 즉 체험적 자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관계”⁵⁷⁾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초기 소설들에서 작가의 시선이 자신에 한정되어 있다는 앞선 평가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⁵⁸⁾ 이에 반해 「운수조흔날」, 「불」 등은 3인칭 서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인칭 서술방식에서 서술자는 스토리 공간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작중인물을 지배하게 된다. 「운수조흔날」이나 「불」에서 서술자는 작중인물들과 같은 스토리 공간에 위치해 내면을 지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중화자라는 점에 의해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일도 피하고 있다.⁵⁹⁾

그런데 소설에는 「운수조흔날」과 「불」을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린 소설이라는 평가를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 존재한다. 김 침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손님을 태우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광학교 학생을 태우려고 할 때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주저하게 된다. 그때 그는 “무슨 일이 있드래도 제일 제이의 행운을 짚은 것보담도 오히려 씹절이 만흔 이 행운을 노칠 수 업다”고 생각한다. 남대문 정거장에서 손님을

56) 憑虛, 「불」, 『개벽』 55, 1925.1, 57면.

57) 슈탄첼은 소설의 서술방식을 주석적 서술, 등장인물 서술, 1인칭 서술로 구분한다. 1인칭 서술은 소설 속 등장인물 ‘나’가 서술자가 되는 것인데, 슈탄첼은 서술자 ‘나’와 등장인물 ‘나’의 서사적 거리와 긴장을 1인칭 서술의 주된 특징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Stanzel F. K., 안삼환 역,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82, 32~35, 62면 참조.

58)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이 작가의 체험을 그린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작가와 신원적으로 오버랩되거나 작가의 전기와 많은 부분 겹쳐지는 작중인물의 과거 이력이 제시되는 1인칭 서술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험으로 파악되는 실제의 이유는 대상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시상을 재현하는 방식이나 체계의 유사성에 의해서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현수, 앞의 2011 논문, 315~324면 참조.

59) Rimmon-Kenan 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117~120면 참조.

기다렸던 것도 “소리를 무는 행운이 꼭 자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행도 조흔만한 미듬”⁶⁰⁾ 때문이었다. 소설에서 김 첨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운수에 기대어 헤아리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위중한 아내에게 약을 안 먹이는 이유 역시 “구태여 쓰라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부터서 자꾸 온다는”⁶¹⁾ 믿음 때문이었다.

모든 일을 운수에 기대는 김 첨지에게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그 반대편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력거에 손님을 태우면서 “이상하게도 소리를 맞물고 텨비는 이 행운 압헤 죽음 겁이 낫”⁶²⁾다는 토로는 이를 가리킨다. 인력거일을 마친 김 첨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워졌는데 그것 역시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요 자귀를 텨친 무서운 불행을 뵈틈업시 알게 된 새가 박두한 것”⁶²⁾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김 첨지에게는 그날의 연이은 행운에 상응하는 불행이 닥칠 것임을 상정되게 된다. 모든 것을 운수에 기대는 인물로 그려진 김 첨지에게 소설의 결말에 놓인 아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불」에서 순이가 겪는 시련은 고된 시집살이에 한정되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인용을 그것을 잘 드러낸다.

허리와 엉치가 썩개내는 듯, 쪼개내는 듯, 갈기갈기 찢는 거같이, 산산히 바스는 거가티 육신거리고 쓸알이고 쭈시고 압해서 견딜 수 업섯다. 쇠막대 가튼 것이 오장육부를 한편으로 치우치며 가슴까지 치바쳐올라, 콕콕 썩질을 썩엔, 순이는 입을 싹싹 벌리며 몸을 우흐로 치수린다 …….⁶³⁾

인용은 순이가 남편과 가지는 원하지 않는 잠자리를 그리고 있다. 고통스러워서 허리와 엉덩이가 빠개지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듯하다. 고통스러워서 잠에서 깰 것 같지만 이어지는 노동에 지친 몸은 염치없는 잠에 뒷덜미를 잡히고 만다. 순이의 절박한 고통은 가난이나 고된 시집살이보다는 남편과의 성관계 때문이다. 이는 남편이 ‘원수’로, 또 남편과 같이 자는 방이 ‘원수의 방’으로 표현되는 데서 드러난다.

60) 玄鎭健, 앞의 소설, 141·143면.
61) 玄鎭健, 앞의 소설, 139면.
62) 玄鎭健, 앞의 소설, 141·144면.
63) 憑虛, 앞의 소설, 55면.

소설에서 성을 통해 순이에게 비극을 강제하는 남편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그려지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것은 성관계를 맺는 남편을 “번쩍이는 눈갈의 힌자위, 침이 썩 흐르는 입술, 그것이 썩어지게 열리며 들어난 누른 이빨만 무식무식하게 뚜렷이” 드러내며, “갓득이나 큰얼굴이 자꾸자꾸 부어오르드니” “꼭지등만하게 되고 집채만하게 된다”⁶⁴⁾는 묘사에서 나타난다. 순이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헛간에 숨어서 자려고 하고, 결말 부분에서 ‘원수의 방’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고 밝은 얼굴로 모로 뛰고 세로 뛰는 거 역시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불」에는 남편을 부정적인 인물로 파악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 역시 등장한다. 소설은 남편이 모내기하는 모습을 “썩가 위여도 괴로운 한숨 한 번 쉬지 안”으며 “거기는 굶주리게 사는 생명의 깃뼘이 잇고 더욱더욱 삶을 충실히 하라는 든든한 노력이 잇섯다”⁶⁵⁾고 그리고 있다. 실제 남편은 고달픈 신세 때문에 울고 있는 순이에게 부드럽고 불쌍해하는 표정으로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기도 한다. 이는 소설에서 남편의 형상에 균열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작가의 하층민에 대한 인식의 균열과 맞닿아 있다.

김 침지가 모든 것을 운수에 기대는 인물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 침지가족의 비극은 운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11월 22일, 23일 『동아일보』에는 인력거꾼의 회합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11월 19일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 아래 목욕비, 이발비 등과 함께 인력거 샅을 25% 인하하려하자 경성 시내 인력거꾼 수백 명이 회합을 가졌다고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은 영업주들이 “가튼 차부 중에도 일본인 차부에게는 십분의 칠분을 주고 조선인 차부에게는 그중에서도 쏘 일본을 차별해야 룽분밧게 아니주”⁶⁶⁾였다는 부분이다. 기사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업주가 인력거꾼이 버는 돈 중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 역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김 침지의 경우는 인력거를 끌어서 버는 돈의 60%만을 자신의 몫으로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4) 憑虛, 앞의 소설, 55~56면.

65) 憑虛, 앞의 소설, 59면.

66) 회합에 이어 곧바로 조선인 인력거꾼 300여 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분배와 차별의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22.11.22., 3면; 같은 신문, 1922.11.23., 3면 참조.

소설은 김 침지가 연이은 운수를 맞기까지 열흘 동안 손님을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음을 얘기한다. 이는 그날 이후에도 손님을 못 태우는 날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날 번 돈 3원 가운데 회사에 납입하는 돈을 제외한 김 침지의 몫은 1원 80전이였다. 1원 80전은 김 침지 가족이 하루 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적어도 10일 많게는 20일 이상을 버티야 하는 돈일 수도 있었다. 실제 김 침지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1원 80전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⁶⁷⁾ 김 침지가 아내의 만류에도 인력거를 끌러 나갔던, 또 몇몇의 손님을 태우고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못 했던 제대로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는 김 침지가 ‘운수 좋은 날’을 맞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아내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비극은 김 침지 가족을 비껴가지 않았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남편과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가려져 있지만 「불」에서 순이 역시 이어지는 노동에 허덕인다. 매일 소여물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하고, 보리를 찜고, 또 새참을 날라야 한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키까지 줄어든 듯하다는 순이의 토로는 이와 관련된다. 그런데 노동의 순이만의 것은 아니다. 남편은 오히려 순이보다 더 일찍 일어나 들에 새벽일을 하러 나간다. 그것은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순이는 가난한 소작농의 집에 시집을 온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열다섯 살이라는 순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른 나이에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당시 “조혼의 성행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빈민은 생존수단으로 조혼을 택”했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여자아이를 물질과 교환하는 일종의 ‘매매혼’”⁶⁸⁾ 역시 그 하나였다. 소설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순이 역시 가난의 문제 때문에 혼인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동력으로 매매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운수조혼날」에서 김 침지는 모든 일을 행운과 불행에 기대어 헤아리는 인물로 그려진다. 1원 80전 정도의 돈으로 10일에서 20일 가량을 버티야 하는 김 침지 가족이 처한 빈곤은 문제는 거기에 가려진다. 결말에서 나타나는 아내의 죽음 역시 연이어

67) 회사가 인력거꾼이 몇 명의 손님을 태웠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태우는 손님의 평균을 계산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68)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와역사학회, 2010, 37-38면.

나타난 행운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소설에서 김 첨지 가족을 비극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대답 역시 분명해진다. 「불」에서 순이가 파국에 이르게 된 것도 가난, 빈곤 등 불리한 환경 때문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소설은 순이가 이른 나이로 혼인을 하게 된 이유나 가족 모두가 실재없이 노동에 얽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원수의 방’에 불을 질렀다며 모로 뛰고 세로 뛰는 것 역시 순이의 고통이 빈곤이나 가난 때문으로 그려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운수조혼날」에서 모든 일을 운수에 기대어 헤아리는 김 첨지의 태도는 이성의 반대편에 위치한다는 데서 미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superstition’은 이전까지 邪術, 妄信, 過信 등으로 번역되다가 이 시기를 전후로 해 미신으로 번역된다.⁶⁹⁾ 실제 미신이 부각된 것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 곧 문화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신은 무지의 다른 이름으로 당시 문화로 집약되는 이성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⁷⁰⁾

「불」에서 순이가 겪는 고통의 주된 이유는 성에 있었다. 열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는 그 고통이 조혼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조혼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이르러 혼인에 적당한 나이가 정해지면서 이전 시대에 어린 나이에 혼인하던 풍속을 비판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⁷¹⁾ 실제 1894년에는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

69) 1925년 언더우드 부자가 편찬한 『英朝字典』에는 superstition에 대한 의미를 (1) 헛것을 믿음, 미신, 迷信, 卍信, (2) 사교, 이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승택·이시준, 「한말·일제 초기 미신론 연구-‘迷惑된 믿음’이라는 문화적 낙인의 정치학」, 『한국민족문화』 51, 한국민족문화학회, 2014, 301면 참조.

70)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문화의 개념을 통해 이성과 과학의 담당자임을 지배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는 식민권력은 미신을 조선의 열등하고 비이성적인 관습으로 위치시키게 된 것이다. 장석만, 「식민지 소설에서 “문명-문화=종교”의 개념적 네트워크 형성」, 『종교문화비평』 2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229~232면 참조.

71) 조선 시대의 혼인 정책은 유교적 신분제를 확립하기 위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인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혼인에 적당한 나이에 대한 규정 역시 당시 제기된 생물학, 사회학 등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조혼은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식민권력에게 조혼을 금지하는 것은

에 비로소 혼인을 허가함으로써 조혼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 조혼이 지닌 문제점은 작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주목하려 하는 부분은 미신과 마찬가지로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조혼이라는 제도를 문제시한 이유이다.⁷²⁾

그것은 당시 운수, 미신 등으로 드러난 무지, 또 조혼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성적 욕망 등이 그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19세기 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후쿠다 도쿠조오(福田徳三) 등 일본의 식민정책 기안자들은 조선인의 성격을 “완고하고 고루함(頑冥固陋)”, ‘고루하고 명확하지 못함(固陋不明)’, ‘의심 많음(狐疑)’, ‘구태의연함(舊套)’, ‘겁 많고 게으름(怯偷)’, ‘잔혹하고 염치없음(殘刻不廉恥)’, 거만, 비굴, 참혹, 잔인 등”의 용어를 통해 규정한다.⁷³⁾ 규정은 조선은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부정적 타자로 표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는 한편 침탈을 정당화하려 했던 일본의 의도를 투영한 것이었다.⁷⁴⁾

“보는 쪽”=‘대표하는 쪽’=‘보호하는 쪽’과 ‘보이는 쪽’=‘대표되는 쪽’=‘보호받는 쪽’의 이항대립 관계”는 “성차별에 사로잡힌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남성>=식민자=제국에 의해 비로소 대표되는 <여성>=피식민자=종속국” 등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때 밑바닥에 존재하”는 논리적 회로로 전회된다. 이는 “식민지에 대한 과학적 고찰 속에서 반복되고, 학술적·평론적인 텍스트 속에서 배분되는 동시에 텍스트 연관 속에서 참조됨으로써 실체화되어 갔다.”⁷⁵⁾ 「운수조혼날」, 「불」 등에 등장한 미신, 성 등에 대한 이 글의 관심은 여기에서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울배반적인 것이기도 했다.

72) 조혼은 단순히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합리적·이성적인 근대성을 자임했던 일본의 식민지 권력이 조선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후진적 비합리성과 감정적 측면을 비판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충실히 활용되었다. 조혼 제도가 근대에 들어서서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식민지의 정치·경제적 문제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었던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김영선, 「결혼·가족담론을 통해 본 한국 식민지근대성의 구성 요소와 특징」, 『여성과 역사』 13, 한국여성사학회, 2010, 147~150면 참조.

73)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89·90면.

74) 尹健次 저, 하중문·이애숙 역,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탐구」,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출서, 1997, 38~46면 참조.

75) 강상중 저, 앞의 1997 책, 89면.

에드워드 사이드는 주변부가 중심부에 대한 과도한 모방을 드러낼 때는 중심부에 종속될 때가 아니라 양자(affiliation)처럼 완전한 결연을 맺어 그 일부가 되려는 욕망을 지닐 때라고 했다. 그렇지만 양자화(affiliation)라는 과도한 모방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데, 입양을 위해 떠난 곳에 대한 강한 부정이 그것이다.⁷⁶⁾ 현진건은 운수, 미신 등으로 드러난 무지, 또 조혼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성적 욕망 등을 김 첨지, 순이 남편 등 하층민에게 부정적인 속성으로 투사한다. 소설에서 모든 일을 운수에 기대는 김 첨지의 무지는 아내의 죽음으로, 순이 남편의 성적 욕망은 방화로 귀결이 되었다. 소설의 결말에서 나타나는 귀결은, 부정성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데서 연원하고 있으며, 그 부정성이 피식민자의 속성임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⁷⁾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진건이 「운수조혼날」과 「불」에서 김 첨지, 순이 등을 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데자뷰처럼 보인다. 이미 「貧妻」, 「술勸하는社會」, 「墮落者」 등에서 허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가장 분명한 대답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설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은 황석우에게 들은 ‘무명산문’이라는 혹평에서 벗어나는 일이자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길이었다. 「운수조혼날」과 「불」에서 하층민을 끌어들이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 역시 이와 관련이 된다. 앞 장에서 박영희가 문예부 주임이 되면서 『개벽』을 프로문학의 미디어적 기반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필진 역시 거기에 어울리게 정립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운수조혼날」과 「불」에서 하층민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전 소설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소설가로서 입지를 굳혔던 일과 데자뷰처럼 보이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바르트는 과거시제와 3인칭대명사를 믿을 수 있는 허위라는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소설적 에크리튀르로 보고, 이를 ‘Larvatus prodeo’, 곧 작가가 자신의 마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로 파악한다.⁷⁸⁾ 현진건은 초기작에서 이와는 달리 자신의 맨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자 한다. 그리고 「운수조혼날」, 「불」 등에서는 거기에

76) Edward W.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p.18~24.

77) 小森陽一 저,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31~36면 참조.

78) Barthes R., Lavers A. · Smith C. trans., *WRITING DEGREE ZERO*, HILL AND WANG, 1967, pp.29~40.

현진건 소설과 『개벽』이라는 미디어

하층민이라는 마스크를 위치시킨다. 그런데 맨얼굴이 하나의 마스크였다는 점, 또 그것이 하층민으로 바뀐 것뿐이라는 점에서, 현진건의 숙명적인 제스처 역시 『개벽』이라는 미디어와 관련된 하나의 에크리튀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0.04.26

심사일: 2020.06.02

게재확정일: 2020.06.17

참고문헌

-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개벽』, 『동명』, 『백조』, 『별건곤』, 『조광』, 『조선문단』
- 강상중 저, 이경덕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재용·이상경 공저,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백철, 『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이경돈, 『문학이후』, 소명출판, 2009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II),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柄谷行人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小森陽一 저,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尹健次 저, 하중문·이애숙 역,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출서, 1997
Barthes R., Lavers A.·Smith C. trans., WRITING DEGREE ZERO, HILL AND WANG, 1967
Edward W.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Rimmon-Kenan 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Stanzel F. K., 안삼환 역,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82
- 김영선, 「결혼·가족담론을 통해 본 한국 식민지근대성의 구성 요소와 특징」, 『여성과 역사』 13, 한국여성사학회, 2010
박용규, 「일제하 시대·중외·중앙·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2,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1996
박현수, 「박영희의 초기 행적과 문학 활동」, 『상허학보』 24, 상허학회, 2008
_____, 「현진건 소설에서 체험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_____, 「세 개의 텍스트에 각인된 미디어의 논리-현진건의 『지새는안개』 판본 연구」, 『대동문화연구』 9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손성준, 「투르게네프의 식민지적 변용-『사냥꾼의 수기』와 현진건의 후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사연구』 54, 민족문화사학회, 2014
- _____, 「한국근대문학사와 『운수 좋은 날』 정전화의 아이러니」,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 송민호, 「1920년대 근대 지식 체계와 『개벽』」,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 안승택·이시준, 「한말·일제 초기 미신론 연구-‘迷惑된 믿음’이라는 문화적 낙인의 정치학」, 『한국민족문화』 51, 한국민족문화학회, 2014
-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와역사학회, 2010
- 장석만, 「식민지 소설에서 “문명-문화=종교”의 개념적 네트워크 형성」, 『종교문화비평』 2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 정연희, 「근대소설의 형성과 현진건 초기소설의 산문의식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27, 현대소설학회, 2005
- 최원식, 「빙허 현진건론」,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 황정현, 「현진건 장편번역소설 『백발』 연구」, 『한국학연구』 4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Hyun jin-Geon's Novels and the Media Called <Gae-byeok> — Focused on <Lucky Day> and <Fire>

Park, Hyun-soo

In this article, I tried to reveal the legitimate meanings of Hyun Jin-geon's novels <Lucky Day> and <Fire>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and the media called <Gae-byeok>, and Hyun Jin-geon's novels published at the same time. Hyun Jin-geon worked for <Dong- Myeong>, <Sidae-ilbo>, but it took 10 months for <Dong-Myeong> to end and <Sidae-ilbo> was published. While working as a reporter, there were rare works published in <Dong-Myeong> and <Sidae-ilbo>, but at the time Hyun Jin-geon's announcement was <Gae-byeok>. The magazine media preferred to publish short stories, but it was unusual for the series to be published in 9 episodes from February to October 1923. In a novel, <The spend Fog> has a problem of epic crack.

Hyun Jin-geon attempted to incorporate <Gae-byeok>'s intention in the novel while taking cracks. <Gae-byeok> has been the media base of proletariat literature since the middle of 1924. In <Lucky Day> and <Fire>, the character's hard life appears. But hard life is not the main reason of the tragedy of the novel. Old Kim is a person who relied on luck for everything, and Soon-yi suffered from sexual relations with her husband. The appearance of Old Kim and Soon-yi feels like déjàvu of the appearance of 'I' in the early works.

Key Words : Hyun Jin-geon, <Lucky Day>, <Fire>, <Gae-byeok>, reporter, <The spend Fog>, crack, luck, sex etc.